

의상에 있어서 신체의 재현과 탈재현에 관한 고찰

덕성여자대학교 의상디자인과 교수 박 현 신

· 목 차 ·

- I. 서 론
- II. 이론적 고찰
- III. 의상에서의 신체의 재현과 탈재현
- IV. 결론

<요 약>

본 연구는 기존의 신체와 의상의 재현 관계로부터 탈재현 현상으로서의 이행에 주목하고, 재현으로서의 의상과 이미지로서의 의상에 관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 첫째, 새로운 인간상에 대한 해석으로서 파편화되고 조각나 해체된 신체와 그와 더불어 이상화 된 신체의 재현적 이미지로서의 의상이 불가능하게 된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로서 고전적 신체관과 전통적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이 확대 변형되었음을 파악하였다. 둘째, 탈재현 현상으로서 의상은 입기나 신체보호의 고정된 기능에서 벗어나 사회 문화적 차원의 다양한 의미의 중첩이 가능한 기호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의상을 복수 지시물로서 해석 할 수 있다. 셋째, 신체의 부재는 다양한 신체의 기표들과 의상의 형태들이 신체를 대신함으로써 부재의 이미지들과 실체들이 실재를 대신하는 하이퍼리얼리즘적 위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의상에서의 탈재현적 현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의상을 단순히 신체와 의상사이의 일대일 대응관계로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의상을 입고 있는 신체의 사회, 문화적 정체성과 시대적 이상이나 이념의 반영과 표출과 같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의상을 새로운 조작과 결합에 의한 은유적 재현(Metaphorical Representation)의 기호로 상정하여, 그에 따른 하이퍼리얼리티(Hyperreality)로서의 위상을 밝힌 것이다.

I. 서론

의상은 제2의 피부로 자연 그대로의 신체를 사회·문화적 신체로 바꾸어 주며 사회적 컨텍스트가 배어있는 그 시대의 언어가 되기에 충분하다. 신체의 재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의상은 기술 발달의 정도나 심미적 취향 또는 철학적 사고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본연의 입기 기능 아래 특정 부위를 강조하거나 노출, 은폐, 왜곡하면서 다양한 표현방식으로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해왔으며 그에 따른 다양한 방식으로 신체의 재현을 드러낸 대표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양자의 관계는 상호 의존적인 재현관계로부터 상호 독립적인 탈재현 현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신체적 재현이 부재한 의상이나 신체 자체의 과편화 되고 해체된 양상 및 전통적 인간 형상이나 인간관에서 이탈한 여러 표현 형태를 반영한 의상은 더 이상 신체의 존재를 대리하는 이미지가 아님을 주장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기존의 신체와 의상의 재현 관계로부터 탈재현 현상으로의 이행에 주목하고, 재현으로서의 의상과 이미지로서의 의상에 관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이는 20세기 후반 시대적 사유의 패러다임인 포스트 모던적 사고 하에서 나타난 의상에서의 복합적이고 모순적인 양상 혹은 안티 패션 운동 같은 현상들의 해석에 중요한 논거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상을 단순히 신체와 의상사이의 일대일 대응관계로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의상을 입고 있는 신체의 사회, 문화적 정체성과 시대적 이상이나 이념의 반영과 표출과 같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의상을 새로운 조작과 결합에 의한 은유적 재현(Metaphorical Representation)의 기호로 상징하여, 그에 따른 하이퍼리얼리티(Hyperreality)로서의 위상을 밝힘으로써 신체의 탈재현 이후에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의상을 연구 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이미지의 재현과 탈재현

본 연구에서 신체와 의상의 관계는 전통적인 신체의 이미지로서 의상에 대한 이탈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이미지와 재현 그리고 재현으로부터 벗어남의 과정을 예술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존 버거에 의하면 이미지는 새롭게 만들어진, 또는 재생산된 시각이며, 원래 부재 상태인 것을 부르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¹⁾

이미지의 재현은 원본이 되는 대상을 닮게 모방하여 대상과 이미지의 일대일의 대응관계 속에

1) John Berger, 「이미지 -Way of Seeing-」 (서울: 동문선, 1998), pp. 28-9

서 이미지를 환영적으로 재현하는 고전적 리얼리즘의 표층적 재현(outer representation)과 표층적 차원을 보다 심층적인 차원으로 전환한 형이상학적 재현인 모더니즘의 심층적 재현(inner representation)이 있다. 또한, 주어진 이미지를 차용하여 다른 것을 말하고자 하며 이미지의 의미의 관계는 쌍방향적 지시 관계를 이루는 포스트모던적인 은유적 재현(metaphorical representation)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표층적 재현은 실재와 이미지 사이의 유사성을 추구하며, 심층적 재현은 실재의 재현을 부정하는 모더니즘 회화에서 표면의 ‘평면성’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자기 지시성의 개념을 지지하지만 대상을 심층적인 것으로 전환한 것이지 재현을 제거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은유적 재현은 재현의 이미지들이 실재 대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언제나 차이가 지속적으로 연기되어 차연적이며 생태적이다.

먼저 예술에서의 이미지의 재현은 역사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층적, 심층적, 은유적 단계로 전개되었다. 예술에서 이미지의 사실적 재현은 구상적인 것, 혹은 한 이미지가 보여지는 대상과 그 이미지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 많은 예술가들은 실재의 재현을 위해 모방에서부터 원근법에 이르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결국 체험된 실재와 예술적 재현 사이에는 작가의 의지가 개입되어 실재의 왜곡과 과장이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된다. 나아가 재현적인 방식으로 모방된 형태들은 양식화되거나 기하학적인 형태로 추상화되어 궁극에는 실재와는 다른 이미지들로 나타나게 되기도 한다.

예술작품이란 이상화된 세계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이상화란 주어진 것을 좀더 고차적인 실재의 이미지를 통해 재구성하는 것임에 반해, 여기에서 이상화란 개념은 순전히 부정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보들레르를 포함한 많은 예술가들에 있어서 이상화란 현실의 해체, 비현실화(derealization)이다. 즉, 그것을 인도하는 이상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공허한 것이 되고 있다.²⁾ 세계를 파괴하는 데에 있어 첫 단계가 변형(deformation)이다. 물론 예술의 긍정적인 표현을 위해 항상 변형이 있어왔다. 그러나 현대미술에 있어서의 변형은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 대상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규범적인 것을 부정하고 예상을 뒤엎기 위해 예술가는 변형을 하게 된다. 즉, 익숙한 대상이 그것의 일상적인 맥락에서 이탈되어 변형되거나 혹은 분절된다. 또 다른 방법은 비정형(disorientation)이다. 이는 일정한 시점을 지시하는 원근법을 거부한다. 세잔느(P. Cezanne)의 ‘왜곡된’ 원근법이 실제로는 아카데미의 원근법보다 훨씬 더 보여지는 것(what is seen)에 대해 충실하다는 주장이지만 오늘날의 예술은 이 주장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곳 까지 원근법을 몰고 갔다.

예술가는 파괴하기도 하지만, 또한 인간 정신의 각인이 찍힌 새로운 질서를 명하기도 한다.³⁾ 추상은 더 이상 묘사된 대상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의 비현실화를 의도한 것이다. 추상화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회화의 대상에 대한 체계적인 파괴가 시작되고, 따라서 가상을

2) H. Friedrich, Die Struktur der Modemen Lyrik (Hamburg, 1956), pp. 93-106

3) Karsten Harries, 오병남, 김연희(역), 「현대미술 -그 철학적 의미-」 (서울: 서광사, 1988), p. 106

넘어서서, 구상을 넘어서서, 피상적인 객관성을 넘어서서, 재현의 범위 안에서 일종의 완전한 진보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사실 실물 그대로의 재현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이미지란 언어나 문자처럼 관습에 의존하는 것이며 모든 이미지는 기호이다.

예술작품의 재현 기능의 배제는 20세기에 들어와 내용과 형식의 이원적 대립을 배제하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해야 할 것이다. 내용과 형식의 대립 속에서 형식은 내용에 종속되어 있었으나, 차후로는 형식이 외부로부터 주어진 내용을 담기를 거부하고 형태 스스로를 자신의 내용으로 삼기 시작한다. 형식의 내용으로부터의 독립은 추상예술로 이르는 길이다. 예술이란 특수한 언어로써 자신의 고유한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⁴⁾

재현을 끝없이 해체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항상 잃어버린 대상과 잃어버린 의미에 의존하는 해석과 해독의 모든 우려에서 단호하게 벗어나고, 의미나 오해의 비판적 격렬함을 잊어버리고, 사물의 출현과 사라짐의 모태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사물의 의미나 표현의 비밀이 아니라, 사물을 중심으로 끌어당기거나 변형의 순환 속으로 분산시키는 비밀을 지니고 있는 사물들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환상의 형태 자체이다.

개념을 초월하는 것은, 개념을 부정하고 변증법적으로 초월하는 것이다. 형태를 초월하는 것은,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옮겨가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지적이고 비판적인 입장, 결국 절망적이고 환상도 없는 입장을 규정한다. 후자의 경우는 환상의 원칙 그 자체이다. 환상에 대해 말하자면, 형태이외에는 형태의 다른 운명도 없고, 이미지 이외에는 이미지의 다른 운명도 없다.⁵⁾ 예술에서 현대성의 대향연은 대상과 재현을 파괴하는 환희 속에 있었다. 대부분의 현대예술은 정확히 말해서 가치로서의 그리고 이데올로기로서의 평범한 것과 하찮은 것과 보잘 것 없는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애쓴다. 현대예술의 모든 이중성은 바로 무가치, 무의미, 비의미(non-sens)를 요구하는 것이며, 사람들이 이미 무가치한 데도 무가치를 지향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모든 현대적 이미지들은 실재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이미지들로서 이것들은 사라져버린 무언가의 “흔적”일 뿐이며,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드러내지도 않는다.⁶⁾

2. 탈재현의 이론적 배경

이미지의 탈재현적 성격은 중심이 아닌 주변적인 것들에 대한 조명, 일대일 대응이 아닌 일대다 대응의 다원적 해석의 가능성 및 이성인 아닌 감성에 대한 기대와 같은 탈모던적 상황과 여타의 징후들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해체주의의 데리다, 거대서사의 소멸과 소서사의 부활을 얘기했던 리오타르, 감각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는 들뢰즈, 이미지와 기표의 과도 실재론의 보드리야르에 의해 제기된 이론들에 근거한다. 따라서 탈재현적 상황의 배경적 설명으로서 위 이론가들의

4) Jean Baudrillard, 하태환(역), 『시뮬라시옹 -포스트모던 사회문화론-』 (서울: 민음사, 1997), p. 30

5) Jean Baudrillard, 배영달 편저, 『보드리야르의 문화읽기』 (서울: 도서출판 백의, 1998), pp. 11-32

6) Jean Baudrillard, 배영달(역), 『예술의 음모』 (서울: 도서출판 백의, 2000)

논의의 검토는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다.

먼저 탈재현적 상황이 제기된 그 기저에는 데리다의 해체론이 자리한다.

해체주의(deconstructionism)는 뉴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그리고 포스트 아방가르드와 포스트 구조주의 등의 이론적 갈등 속에서 등장하였다. 사물을 분리하고, 절단하며, 부수고, 조각내지만 그 과정을 통해 얻어진 부분들과 조각들을 설득력 있는 원칙하에 재구성하는 예술과 건축에 관한 개념이었던 구성주의 이론을 통해 해체주의적 성향의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다.⁷⁾ 데리다의 언어관에 의하면 기표는 거울이 상(像 : image)을 비추듯이 직접적으로 기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언어에 있어서는 기의들 사이의 똑같은 일대일의 대응쌍이란 없다. 기표와 기의는 계속해서 분리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조합을 한다.⁸⁾ 해체주의가 무엇인가에 관한 기초적인 사고의 목적은 언어, 해석, 철학 등과 같은 것에 대한 개념이며 이러한 개념은 본질적인 면에 대한 거부할 수 있는 것이며 그래서 그 거부의 결과 다른 표현을 찾으려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거부는 과거-형이상학의 역사-를 잊어버린 아방가르드적인 제스처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며, 오히려 형이상학의 역사가 철학 그 자체의 표상(presentation)을 지배하고 그래서 그것을 구조화할 수 없도록 만들었음을 보아야 할 것이다.⁹⁾ 즉 이것은 미묘하고 정교한 내부로부터의 해체 작업이며, 닫힌 체계(closed system)내에서 단순히 지배받는 대상물이 되기를 거부하고 시간적 공간적 경계를 초월함으로써 가능해지는 열린 사고와 열린사회라 할 수 있다.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Jean-François Lyotard)에 의하면 “거대서사”의 소멸로 특징지었던 복수주의와 복수 문화주의를 특징으로 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하나의 혹은 여러 개의 텍스트 속에서 언어, 모델 및 수행 방법상의 복수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리오타르는 포스트모더니즘을 ‘거대서사의 종말’로 정의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현대는 그때그때 ‘메타-설화’ 밑에 이루어지는 총체화로 규정될 수 있다면 현대 후기는 ‘다른 것들’과 ‘이질적인 것들’이 배척되거나 사멸됨이 없이 가치화 되고 동등하게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라는 것이다.¹⁰⁾ 한 가지 사유의 형식으로 통일을 추구했던 논리 중심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던 사고가 설정하고 추구했던 하나의 중심은 진정한 보편성을 지니고 있지 않음이 밝혀졌고, 그것으로는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상부구조로서 메타-서사는 존재할 수 없다. 경험이나 감각, 이미지 보다 텍스트와 형상에 우위를 부여하는 텍스트주의적 접근을 거부하면서 담론, 형상은 추상화와 개념을 넘어서는 감각과 경험의 우월성에 대한 주장을 옹호한다. 따라서 리오타르는 합리주의자와 텍스트를 강조하는 담론 이론가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비판과 평가절하로부터 이미지와 형식과 욕망을 구제하려고 노력한다.¹¹⁾ 리오타르가 볼 때 현대적 지식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었다. 첫째 조건은 정초주의적 주

7) Peter Noever, 김경준(역), 『뉴모더니즘과 해체주의 1』 (서울: 청람, 1996), p. 11

8) Madan Sarup, 임현규(역), 『데리다와 푸코,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인간사랑, 1994), p. 19

9) 이광래 편저,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교보문고, 1992), p. 56

10) 박상선, 『포스트모더니즘의 구조와 리오타르의 철학- 포스트모더니즘의 예술과 철학』 (서울: 열음사, 1992), p. 26

11) Steven Best, Duglass Kellner, 정일준(역), 『탈현대의 사회이론』 (서울: 현대 미학사, 1995), pp. 197-9

장을 정당화 하기위한 거대서사시의 호소이며, 둘째는 정당화, 탈정당화, 그리고 배제의 불가피한 결과, 그리고 셋째 조건은 동질적인 인식론과 도덕적 규정에 대한 욕구이다. 반면 탈현대 지식은 이에 대조적으로 거대서사와 정초주의에 대해 적대적이며, 정당화의 거대한 계획을 회피한다. 그리고 그것은 이질성, 다원성, 지속적인 혁신, 그리고 참여자에 의해 합의된 국지적인 규칙과 처방의 화용적 구성을 위한 것이고, 그럼으로써 미시정치를 위한 것이다.¹²⁾ 즉, 다원성, 복수성, 차이, 타자성에 대한 탈현대적 강조를 지속하면서 합의에 대해 불합의를, 통일성과 합의에 대해 다양성과 불일치를, 동질성과 보편성에 대해 이질성과 공약 불가능성을 강조한다.

들뢰즈의 신체론은 신체와 의상의 탈재현적 상황에 보다 직접적으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감각의 논리와 기관없는 신체를 제기한다. 들뢰즈는 본체와 외관 사이의 대립을 해체하고 플라톤이 억압하려고 했던 차이와 비영속성, 모순, 비동일성, 허상들과 같은 현상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였으며, 차별화되지 않은 육체의 원초적 세계를 묘사하는데 거기에서 자아와 초자아의 구조가 출현한다. 들뢰즈는 육체를 분절된 부분들의 무질서한 조합으로 파악하여 “기관 없는 신체(body without organs)”라고 부르는 응고되고 물개성적인 덩어리라고 하였다. 기관 없는 신체란 기관이 부재한 신체(organless body)가 아니라 기관화(조직화, organization)되지 않는 신체이다.

III. 일상에서의 신체의 재현과 탈재현

인류가 옷을 입기 시작한 이래 각 시대나 지역에 따라, 혹은 철학적 배경과 이상의 추구, 문화적 환경 등의 요인들에 영향을 받아 형태를 달리 하기도 하지만 의상을 통한 신체 재현의 노력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의상이 신체를 재현한다거나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입는다는 기능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의상의 입는다는 전통적인 개념은 일반적으로 신체를 보호하고, 활동성을 보장하며,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도덕적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경우 의상은 신체를 보다 아름답게 장식하고 이상적으로 보이게 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철학과 예술에서 새롭게 제시한 신체에 대한 해석은 신체관의 고정적인 틀을 부수는 것으로 종래의 신체에 대해서는 거부의 자세를, 새로운 신체에 대해서는 긍정, 혹은 부정하면서 실존하는 신체를 넘어선 이미지로서의 신체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문화적 일치성(cultural consistency)¹³⁾에 의해 의상의 기능성이 부재되고 신체를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의상의 미적 개념에 혼란을 일으키며 성적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는 의상을 등장시켰다. 과거에도 기능성이 배제되고 성의 모호함을 표현하거나 과장과 왜곡을 하는 의상이 있었다할지라도 이는 당대의

12) Steven Best, Duglass Kellner, 정일준(역), 앞글, p. 217

13) 의상의 흐름이 한 시대의 회화, 건축, 조각, 실내장식, 가구 등 타 예술 분야의 시각적 조형양식 내지는 표현의 미적 주제와 일치점을 보여준다. Roach, M. & Musa E New perspective on the history of Western dress, A handbook, 1980.

시대적 패러다임에 의해 신체를 재현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였으므로 오늘날의 의상과는 차별화 된다.

동시대 이미지가 실재를 재현한 것이라는 전통적인 의미기능을 역전시켜 기표와 기의의 관계에서 기표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이미지가 실재를 지배하는 것으로 바뀐 것처럼, 의상 이미지 또한 본래 의상이 가지고 있던 기능성과 보호, 상징성, 장식성과의 일치관계나 대응관계를 해체하거나 은유적 재현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위하여 본 장에서는 의상의 본질적인 기능이 신체와의 관계에서 비롯됨을 전제로 물리적 기능, 미적 기능, 사회적 기능으로 분류하여 이를 근거로 재현을 위한 의상과 이미지로서 등장한 의상에 대해 고찰하고, 이와 같은 의상의 본질적인 기능이 신체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재현되었으며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의상의 형태와 의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재현으로서의 의상

의상에 있어서 재현은 의상과 신체 관계에서의 시각적 유사성은 물론 기능의 재현을 함께 포함한다. 의상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 시대별로 각 시대가 가지는 신체와 의상에 대한 개념과 기술의 발달 정도에 따라 신체의 모습을 재현하는 방법이 달랐음을 알 수 있다. 그리스의 키톤이 얇고 부드러운 린넨으로 수많은 주름을 통해 인체의 곡선을 재현했던 가장 오래된 예가 된다. 한 장의 천에 구멍을 뚫어 머리를 넣을 수 있도록 고안된 키톤은 신체를 실제로 간주하고 시각적 유사성을 가지는 형태를 의상에 반영하고자 했던 의도는 동시대 보드리야르의 시뮬라크르의 단계에서 밝힌 이미지가 기본적 실재를 반영하는 재현의 기본 단계, 즉 표층적 재현의 단계로 볼 수 있다. 이미지의 재현은 실제 대상을 닮게 모방하여 대상과 이미지의 일대일의 대응관계 속에서 이미지가 환영적으로 재현되는 것과 같이, 의상에서도 신체를 모방하는 과정 가운데 실물 그대로의 재현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사실적 재현이 불가능한 신체가 해체되면서 의상은 양식화되어 샤넬이 단추는 단추의 위치에서 주머니는 주머니의 위치에서 기능을 해야 한다고 했던 것처럼 기능이 형식을 부여는 기능주의적 의상으로 발전한다.

의상의 본질적인 개념 혹은 전통적인 개념은 인류가 의상을 착용하게 된 동기나 필요성을 고찰해 봄으로서 정의할 수 있다. 조규화¹⁴⁾는 복식을 객관적 신체에 걸치는 물(物)로서 보았을 때는 물체로서 신체와의 관계만이 존재하지만 종교적 신조, 마법, 사회적 지위, 인종의 차이, 모방의 취미 등과 같은 정신적인 조건과 연관되면 단순히 ‘입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치장한다’는 개념이 포함된다고 했다. 또한 복식의 필요성은 신체보호, 수치, 특수와 공통, 주술, 장식욕구 등에 의해서이며, 마릴린 J. 혼¹⁵⁾은 의복의 기능을 정숙성, 비정숙성 이론과 신체보호, 장식성으로 들고 있

14) 조규화, 『복식미학』 (서울: 수학사, 1996)

15) Marilyn J. Hon, The Second Skin -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2nd Ed. (New York, 1968)

다. 이은영¹⁶⁾은 복식의 착용 동기를 신체보호(기후,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심리적 보호(신분의 표시, 미신, 종교적 욕구, 의식의 표시), 정숙성과 비정숙성, 신체 장식을 들고 있다. 이들 이론을 근거로 의상의 본질적인 개념은 신체를 중심으로 보호의 물리적 기능과 미적 기능, 신분 등을 표시하는 사회적 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의상의 물리적 기능은 신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초기에는 외부의 위험으로부터의 보호가 우선 되었으나, 점차 신체의 구조와 관련된 활동성이나 기능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원시 시대에는 한 장의 시각형 천을 어깨에 걸치고 허리를 묶어 고정시킨 것으로 보온과 외부로부터의 보호의 기능을 하는 것이었다. 신체의 구조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고대의 의상은 그리스 시대의 키톤(chiton)과 같이 한 장의 천으로 신체를 감싸면서 보호의 기능과 사회적 신분을 표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모슬린같이 얇은 한 장의 천으로 어떤 형태의 구성이나 조작 없이 단순히 신체위에 걸침으로서 생기는 작은 주름을 가는 끈으로 묶음으로서 신체의 곡선과 윤곽선을 드러낼 수 있는 키톤은 신체의 형태를 재현하고 착용자에게 활동성을 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의상의 형태였다. 또한 이 시대의 의상은 기후적인 조건으로부터 신체 보호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입는 방식에 따라 성의 구별을 하였고 주름을 늘어뜨리는 방법과 양으로 미적 표현을 하고 있다. <그림 1> 한 장, 혹은 두 장의 천으로 허리에 두르고 상의에 걸쳐 가늘고 고운 주름을 만들어 신체의 곡선을 최대한 살린 이 의상은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지적이며 이상적인 신체의 곡선미를 숭배했던 그리스인들의 생각을 잘 반영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시대가 지나감에 따라 발전된 신체의 구조에 대한 인식과 기능에 대한 요구는 의상의 형태를 한 장의 천에서 팔을 고려한 T자형의 상의인 카프탄(caftan)과 단순하지만 다리를 분리시킬 수 있는 바지의 형태로 발전시켰다. 단순한 T자형에 기초했던 의상은 원통형의 소매가 달린 꼬떼(cotte)와 겹옷인 써코트(surcoat)로 발전하였고 속옷의 일종이었던 꼬떼는 여성의 하체를 강조하는 페티코트가 되었으며 써코트는 장식적인 여성의 드레스로 발전하였다. 또한 바지는 바잔틴의 넓은 바지에서부터 오늘날의 니커스까지 기본적으로 인체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었다.

신체를 사실적으로 복원하고자 하는 욕망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르네상스 시기부터 신체의 입체적인 구조를 고려한 재단법의 발전을 이룩하여 관절을 따라 각 부분이 입체적으로 제작되고 합체되어 움직임 후에도 신체의 형태를 유지하게끔 고안된 남성의 수트¹⁷⁾로 발전하였고 이는 중세의 갑옷으로부터 유래되었다. 갑옷은 인체의 각 관절을 따라 각 부분이 제작되어 합해져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것으로 신체의 모습을 재현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림 2> 여성의 의상에서는 신체의 곡선을 재현하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키톤 이후에는 비잔틴으로부터 유래된 요즈음 프린세스라인이라고 부르는 선이 들어간 드레스가 있었으며 그 이후 드레스는 여성의 생물학적인 신체의 특성이 강조되어 수유의 기능을 하는 가슴이 강조되었고 출

16) 이은영, 『복식의장학』 (서울: 교문사, 1995)

17) 이민선, “남성의 몸과 패션에 표현된 미적 이미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2001. p. ii.



<그림 1> 키톤



<그림 2> 갑옷



<그림 3> 신축성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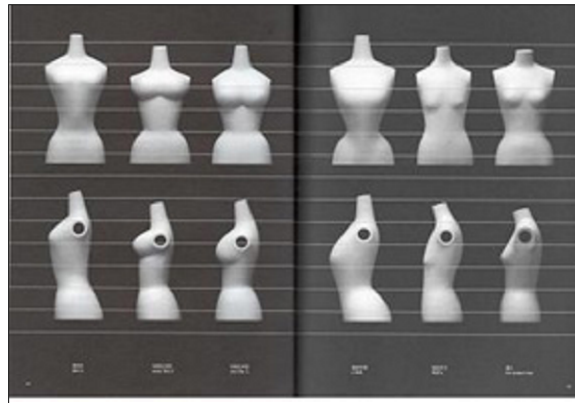
산에 관련된 골반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여성의 의상은 여성적인 신체의 형태를 강조하기 위해 바디스, 코르셋, 브레이지어 뿐만 아니라 후프나 크리놀린 등과 같이 허리를 졸라매서 가슴과 엉덩이를 강조하기 위한 다양한 장비를 사용했다.¹⁸⁾ 신체의 부분에 관심을 기울였던 바로크 시대에는 부분적 장식이 발달하였으며 이로 인한 신체의 왜곡된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부분의 강조로 재현하고자 하는 실재를 은폐하고 포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신체의 완벽한 사실적 재현은 과학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개발된 제2의 피부라고 불리는 신축성 있는 소재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그림 3> 또한 신체의 구조를 그대로 드러내어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여성미를 강조하는 바디 콘서스(Body Conscious) 라인으로 설명된다.

의상의 미적 기능은 각 시대별로 추구했던 이상형의 신체를 구현하는 것과 미의 규칙에 따라 신체를 장식하여 신체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거나 형태미를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별로 추구했던 이상형은 각기 다르지만 그 형태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집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상형이 벽화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크고 가늘고 길게 늘린 인체로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모습과 그다지 다르지 않으며 의상 또한 신체의 구조나 미적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고대의 다비드 상, 비너스 상에 이어 르네상스의 비트루비우스의 비례체계에 따른 남자의 모습은 최근까지 서구적 시각의 이상적 신체의 표본으로 생각되어 왔다. 사실적 재현의 대상으로서의 신체는 재현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완벽한 형태로 추구되었고 이상형의 신체는 현실적으로 재현될 수 있기에는 많은 제한이 있다. 그러나 이상형으로서 신체의 결핍을 보충하기 위해서 예술가들은 완벽한 신체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을 상상하고 시도 했다. 사회적으로 규범화된 미의 표상은 다이어트, 성형을 통한 몸만들기와 같은 신체의 통제 방법을 통해 만들어진, 혹은 재창조된 신

18) M. Gottdiener, Postmodern Semiotics -Material Culture and Forms of Postmodern Life- (U. S. A.: Blackwell, Oxford UK & Cambridge) pp. 209-32.

체를 등장시켰다. 의상의 역사를 보면 신체를 통제하여 시대적 이상형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혼적들을 볼 수 있다. 크레타 여인의 상체를 고정했던 동의, 중세의 빠니에, 크리놀린(Crinoline), 코르셋(Corset), 브라(Bra), 거들(Girdle) 등이 그 대표적인 예로 신체를 조이기 위해 혹은 부풀리거나 정상적인 비례를 바꾸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 결과 인간의 신체는 시대별로 그 형태가 달라지고 <그림 4> 시대가 요구하는 이상형의 신체를 만들기 위해 또 다른 통제가 가해지는 반복이 이루어졌다.



<그림 4> 시대별 신체의 변화

플라톤은 육체와 정신을 이분법적인 대립관계로 파악하여 육체는 변화하고 소멸되는 물질성의 세계에 속해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데카르트는 두 개의 실체로 분리하여 정신만이 본성에 속하여 주체를 결정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사유하고 판단하는 정신의 행위이므로 “생각하는 인간”을 주장하였다. 그 결과 신체는 정신에 대해 하위개념으로 취급되었으며 신체 자체가 가진 존엄성은 무시되었고 정신과 분리되어 피와 살이 있는 물질로서의 신체로 취급되어 자연의 신체(the nature body)에 대한 훼손이 자행되었다. 그 결과 정신이 아닌 신체를 본질로 하는 의상에 대한 평가는 절하되었고 의상은 겉모습을 치장하는 가벼운 존재로 받아들여졌고 신체와의 일대 일의 대응관계 속에서 신체를 통제하는 수단이 되었다.

해부학이 등장한 후 전통적인 서구의 신체에 대한 시각은 고전적인 미의 규칙에 따라 수직적이고 균형이 있는 대상으로, 상하, 좌우가 있는 적절한 비례의 인체를 이상형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안정된 신체에 훈련된 눈은 머리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동시에, 좌우에 조형 요소들을 배치하여 균형을 이룬다. 디자이너들은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목선에서 시작하여 적절한 비례와 대칭적 구조를 이루며 밑단에서 끝나는 완전한 의상을 추구했다. 또한 적절한 비례의 신체 구조를 의식한 재단법은 관절의 위치나 신체부분의 크기 등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신체의 결함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었으며 이것은 외부 세계로 향한 신체의 존재를 의식한 결과이다.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은 부드러운 어깨, 부푼 가슴, 가는 허리, 퍼진 치마 등과 같은 여성적인 곡선을 최대한 살려 꽃과 같은 모습으로 여성의 신체에 봉사하는 뉴룩(New Look)을 발표하였다. 이는 수직적이고 균형 잡힌 적절한 비례의 대칭적인 신체 구조를 의식한 정확한 재단법에 의해 재단된 구성적인 의상으로 객관적인 미론에 근거한 안정된 신체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여성의 신체 구조를 완벽하게 재현한 X실루엣으로, 재현으로서의 의상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의상은 주체가 바라보는 실체의 재현으로서 외부 세계로 향한 신체의 존재를 위한 것으로 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그 차체로서 하나의 완성된 단위가 된다.

의상은 착용자가 특정 문화에 소속되어 있음을 나타내어 줄 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의 계층에 소속되어 있으며 맡은 바 역할을 나타낸다. 인간은 의복을 상황에 적절하게 입음으로써 사회적 신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또한 의상은 어떤 사람에게서는 자기 확립이라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서는 복종이라는 정확한 사회 정치적 역할을 부여하고, 각각의 신분을 알림으로써 각각의 자리에 고정 시켰다.¹⁹⁾ 사회적 역할과 정체체감은 의상이 입혀지는 방식으로 각인된다. 젠더, 특히 여성성은 옷을 통해 입혀진다.²⁰⁾ 정신과 육체, 이성과 감성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사고 하에서는 남녀의 성별의 구분 역시 확고한 것이며 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기대되어지는 남녀의 역할과 모습은 의상에 의해 더욱 확고하게 구별된다. 의상은 성적 차이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성의 역할까지도 강요하는 수단이 되었다. 여성의 의상을 입는 단순한 행동은 여성을 종속적인 역할에 놓이게 하고 그렇게 인정한다. 반대로 남성의 의상 역시 그들의 지배를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관계는 그다지 강하지 않다. 이것은 우위와 종속의 이중적 본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²¹⁾

한 장의 천이나 단순한 T자 형태로 특별히 남녀의 구분이 없었던 고대의 의상은 14세기의 전환점에서 의상으로 신체를 재현하는 과정에서 남자와 여자, 모든 계층의 각기 다른 역할에 따른 모습으로 정형화되어 사회적 기능이 강화되었다. 이 때부터 의상의 기본 형태인 바지와 드레스는 발생초기의 의도와는 달리 명백하게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나타내는 표현 도구가 되었다. 여성의 특성과 지위는 그녀의 외모에 의해 판단된다. 여성은 일상적으로 머리수건을 하고 앞치마를 입었으며, 아주 최근까지 여성은 집에서 일을 하거나 허드렛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의상을 차려 입었다. 반대로 남성들의 의상은 자신의 사회적 역할이나 직업을 상징하며, 특히 비즈니스 수트는 영국의 브르조와 신교도들에 의해 받아들여진 이후 1950년대까지 자본주의의 상징으로 남아 있었다. 넓은 어깨와 직선적인 선의 Y실루엣은 남성미의 표상이고 가는 허리와 부풀린 가슴과 스커트의 X실루엣은 여성미를 대변하는 것으로 이러한 신체의 형태를 재현하고자 남성의 재킷에는 두툼한 심지와 어깨심이 들어가고 여성의 의상에는 코트셋과 브레이지어, 후프와 크리놀린과 같은 다양한 장비들을 사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재단법에서도 남성복은 직선적인 재

19) Jennifer Craik, *The Face of Fashion -cultural studies in fashion-* (London: Routledge, 1994), p. 55

20) Jennifer Craik, 앞글, p. 56

21) M. Gottidener, 앞글, pp. 209-32.

단인 반면에 여성복은 신체의 곡선을 좀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기 위해 비오네와 같은 디자인어는 바이어스 재단법의 개발에 열중하였다. 이러한 의상에 대한 고정관념은 20세기에도 이어져왔으며 신체 구조에 대한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발달된 재단법에 의해 더욱 확고한 형태가 되었다. 섹슈얼리티에 대한 강조는 특히 패션 시스템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소비사회에서 더욱 두드러진 것이었다. 소비사회에서 여성의 신체는 수동적인 표현의 매개체이자 남성의 응시에 의해 바라봄의 대상으로 욕망의 대상이자 쾌락의 진열장으로 조직화하기 위해 의상을 도구로 사용한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의상의 신체에 대한 재현은 신체의 물리적, 사회적 기능의 재현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신체의 모습과 구조에 대한 시각적인 유사성을 추구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시각적 유사성에 있어서 신체의 구조와 기능의 완벽한 재현의 완성은 관절의 움직임까지 고려한 수트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이성에 기반하여 인간 주체가 바깥세계를 합리적으로 파악하여 역사를 진보, 발전시킨다는 객관성의 논리²²⁾인 모더니즘 사고와 완전히 부합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2. 이미지로서의 의상

20세기에는 수많은 이념과 이즘(ism)들이 혼재했다. 특히 확고한 형이상학적 신념과 과학적인 가설들이 깨지면서 그것에 의존하여 설명되어졌던 모든 현상들이 사실이 아니며 환상에 불과했다는 생각은 전통과 관습, 절대가치에 대한 심각한 회의와 반성을 불러 일으켰고 현상과 본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객관성과 논리적인 필연성에 의해 지배받는 합리적인 이성을 기초로 한 과학적 사고에 근거하는 모더니즘에 대한 회의는 현전에 가려있던 타자성을 부각 시키고 상호 텍스트성, 탈구성, 탈중심, 차연의 논리 등을 통하여 반본질주의 또는 무정부주의적인 의미의 해방 또는 의미의 부재, 비존재로서의 존재의 부재를 추구하게 한다. 이러한 사고는 실존하는 신체를 넘어선 또 다른 신체를 제시하고 의상의 형태와 표현 기법뿐만 아니라 의상의 본질을 해체한다.

의상은 의상의 본질적인 실체인 신체를 떠나 의상 그자체로 존재하기 시작 했다. 의상의 신체에 대한 탈재현의 현상은 여전히 가시적인 형상으로서의 신체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신체 부재의 방법과 이를 완전히 떠난 형태로 나누어진다. 전자의 경우에 신체는 여전히 가시적으로 남아 있으나 원래의 신체와 의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을 끊임없이 감추고자 하고 있으며 들뢰즈의 신체가 각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여 그 기능과 위치를 고정시키는 유기체에 반대하는 것처럼 통합된 구성체를 이루기를 거부하여 부분이 부각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후자에서 의상은 신체, 즉 입는다는 개념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의상이 함의하고 있던 기의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미지들이며 여기에서 의상은 단지 신체가 있었던 흔적일 뿐이며 더 이상 신체가 있었음도

22) 김성기, 「모더니티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1994), p. 17

부재함도 감추거나 드러내지 않는 자율적인 이미지이다. 이는 이미지가 실재와는 전혀 무관하여 이미지와 실재 사이의 거리가 없어지며 이미지는 실재를 지시하지 않으며 부재를 현전으로 제시하고 상상이 실재가 되는 보드리야르의 시뮬라시옹의 개념과 일치한다.

의상에 있어서의 해체는 엄밀하게 말해 의상의 구조와 더불어 철학에 의해 조직된 관념뿐만 아니라 이론, 실행 등에 의해 지배되는 의상개념의 철학적 구조를 해체한다. 전통적으로 의상에 있어서 구조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체를 위한 구조와 입는다는 기능은 분리되지 않고 항상 융합되어 유지해 왔다. 즉 유니폼=특정직에 종사하는 사람, 비즈니스 슈트=회사원과 같이 의상에 있어서 기능과 상징, 미적 형태는 기호와 의미의 일대일의 대응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의상에 있어서 전통적인 “입음”의 개념이 변질되면서 옷의 의미문제는 다시 논의되기 시작하여 입는 방식에 대해 저항하는 안티패션 운동을 넘어서 옷의 기능성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의상이 기능의 상징이라는 것에 대항하는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이 발표되었고 신체와 정신 모두를 위한 은유와 상징의 매개체임을 주장하였다.

의상디자이너 혹은 예술가들은 의상의 정확하고 기술적인 재단기법에 의한 구조와 조화 등의 전통적인 미학적 가치를 거부하며, 또한 기능성, 보온성, 성별과 같은 정체성의 상징, T.P.O개념이나 성의 문제 등의 관습적인 편견들을 해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의상 언어”를 찾고자 한다. 패션 영역에서 과거의 모든 양식과 디자인에 대한 회의와 단절은 의상의 권위와 기능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한 안티패션 운동과 이를 넘어서 의상이 기능의 상징이라는 것에 대항하는 다양한 형태의 작품²³⁾으로 표현되었다. 안티패션 운동은 논리적인 필연성에 의해 지배받는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의상 즉, 신체를 중심으로 한 입체적이며, 구조적으로 적절한 비례로 구성된 의상에 대한 반발과 왜 입어야 하는가에 대한 거부는 신체가 주어진 것이라는 전체에 도전하였다. 주어진 신체가 가지고 있었던 미적 기준인 수직적이고 균형 잡힌 적절한 비례의 대칭적인 신체 구조에 대한 반발은 의상의 각 부분과 구조를 해체하고 재구성하여 조화된 전체성의 부재를 가져왔으며 신체의 각 부분에 대한 과장과 축소, 왜곡, 변형은 새로운 신체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은폐와 왜곡의 이미지로서의 의상에서 가시적 형상인 신체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여기에서 신체는 의상이 가지는 본질과 기능이 부재되었음을 감추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 의상은 여전히 신체위에 입혀져 있고 신체를 중심 개념으로 충실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능이 없어지거나 분리된 신체의 각 부분은 재조합되어 또 다른 신체를 제시하고 성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여 본래의 성을 은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신체의 탈재현 현상은 들뢰즈의 기관 없는 신체의 주장과 리오타르의 포스트모던의 조건과 더불어 설득력 있게 등장하였고 의상에도 신체의 미적기능 재현의 포기는 근대 이후 예술가들의 내면세계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기법인 왜곡과 과장, 축소의 방법으로 나타났다. 의상의 신체로부터의 이탈은 신체 각 부위에 대한 고의적인 왜곡과 과장으로 나타났으며 괴이하고 혐

23) 박현신, “카오스·프랙탈적 사고에 기초한 의상의 해체 경향에 관한 연구”, 복식 38호, 1998, p. 180

오스러운 화장을 하거나 길고 섬세함의 상징이던 아름다운 목에 거칠고 투박한 장식을 하기도 한다. 조각난 신체의 부분들은 제 위치, 제 역할을 벗어나 의외의 형태로 표현되거나 해체되었다가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연결을 유도하거나 또 다른 형태의 전환 가능성을 가진 형태가 되기도 한다. 안정된 신체에 적합한 모더니즘의 의상과는 달리 신체의 선에 어긋나는 비대칭적인 선과 밀단선, 부분 요소들의 이동과 더불어 의상은 평면화 되어 신체의 구조선을 완전히 무시하기도 한다.

1980년대 이후에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타자’의 개념으로 소외되었던 유색인종과 제3세계와 더불어 여성은 중심 개념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페미니즘운동은 단순한 여성해방이나 여권신장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여성을 남성의 반대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동일한 한 인간으로 새로운 가치를 찾아 여성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재평가를 시도하였다. 기존의 고정관념에서는 남성과 여성은 대립의 구도였지만 오늘날에는 남녀간의 힘과 속도의 차이의 중요성이 감소되고 여성의 사회진출은 성역할에도 영향을 미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양성의 특성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남녀의 성적 차이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하는 입장과 남녀의 이분법적인 정체성 자체를 해체하고자 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Jane Grove²⁴⁾는 20세기 의상의 혁명은 성의 가시적 불일치, 즉 성의 특징을 구분지어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두성의 특징을 은폐하여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더 이상 사회적으로 의미지워진 단일한 총체이기를 거부하며 외부 환경이나 권력에 의해 시시각각으로 변신하는 원형이 부재한 신체는 사회, 문화적, 정치적으로 규정지어진 성의 구별에 저항하여 여성과 남성의 동질성, 혹은 차별성에 초점을 둔 성별이론(Gender Theory)을 거부한다. 즉, 의상의 상징성과 기능성에 따라 성의 “분업”이 이루어져 왔으나 포스트모던 사고 하에서는 고착된 성의 정체성을 비판하는 동시에 강화하면서 해체시킨다. 또한 후기 산업사회의 남성 주도적인 사회 활동에 여성들의 도전은 여성들로 하여금 동등한 지위를 요구하게 하였고 이와 더불어 공공의 책임을 함께 나누게 되면서 남성의 절대 권력은 약화되었고 남성의 의상에도 천박하고 자기도취적인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체통과 권위의 속성을 수정한 새로운 의복 행동 코드를 수용하게 되었고²⁵⁾ 여성의 의상은 상대적으로 활동적이고 장식이 배제된 형태가 되었다.

의상을 통해 남녀를 구분하는 것에 거부하여 성의 구분이 없는 단일성형인 유니섹스 룩(Unisex Look)을 등장 시켰고 더 발전하여 반대의 성을 강조한 도착적 의상을 입는 트랜스베스티즘(Transvestism)과 각각의 성이 한 의상에 표현된 자웅동체의 양성형 의상인 앤드로지너스 룩(Androgynous Look)이<그림 5> 등장하였다. 많은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전위의 가능성을 경험했고 불분명한 성이나 성의 견고한 경계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의상을 만들었고, 의상을 차이를 위한 투쟁의 표시로, 또 여전히 다른 본성과 성에 대한 동등함의

24) Jane Grove, Fashion (London: Macmillan Education Ltd., 1971)

25) Craik, 앞글, p. 178



<그림 5> 남성의 가는 허리

인식을 위한 도구로 생각했다. 해체되고 부분으로 분화된 신체의 재조합 과정에서 나타난 기형적인 신체는 모든 신체의 존재가치를 인정하였고, 동성애의 노출(coming out)은 물리적인 신체의 성별을 넘어서 제3의 성의 수용을 가능하게 했다.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성에 대한 후기구조주의의 담론을 넘어 신체를 중요한 표현의 장이자 모순 발생의 근거로 보고 공격적으로 이를 이용하고 있음을 볼 볼 수 있다.

가시적 형상으로서의 신체를 완전히 떠난 의상은 더 이상 의상으로서 입기 위한 기능은 없어지고 실재와는 무관하게 스스로 존재하는 이미지가 된다. 해체적 사고 하에서의 의상은 의상의 주체인 신체의 해체와 부재를 시도함으로써 의상을 비어있는 상태가 되게 한다. 의상이 비어 있다는 것은 의상을 신체와 유리시켜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또 다른 실체로 간주하는 것이다.²⁶⁾ 시대적 사고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신체와 의상에 큰 영향을 미쳤고, 신체에 봉사하는 의상이 아닌 오늘날의 의상은 의상을 착용한 사람이나 의상 자체의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신체로부터 추상화되거나 신체가 완전히 빠져나간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며, 주변에 나타나는 모든 것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과 혼재(Fusion)로 예기치 못한 신체의 형태, 실존하는 신체를 넘어선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새로운 개념으로 재해석된 의상들은 현존하는 물체로서보다는 성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 사회적 역할, 문화적 메시지, 힘의 정치권을 상징하는 은유로서 제시되어 의미를 전달하는 기호체계의 기능과 상징성을 지닌다.

더 나아가서는 의상으로부터 신체를 제거하고자 시도하여 신체가 빠져나가 완전히 시적인 형태가 된 의상을 하나의 오브제로 제시하거나, 논리적인 필연성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비논리적인 우연성이 강조된 의상, 신체의 기본 구조와 비례를 무시한 평면적인 의상을 등장시켰다. 이러한 현상은 유행의상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옷에 대한 신체의 문제와 함께 설치미술이나 행위에 있어서도 나타나는데, 이들 작가들은 옷 속에 함축된 내적 의미들의 갈등들을 해체, 전복시켜 옷

26) 윤난지, “얇고 불투명한 옷입기”, Art, 1999. 12월.



〈그림 6〉 설치된 의상



〈그림 7〉 기계화 된 신체



〈그림 8〉 신유목민의 의상

이 결코 “입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작용을 하는 다중코드임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복식조형을 주된 표현 매체로 사용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의상을 예술의 매개체로 차용하거나 담론의 텍스트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의상은 의미전달 체계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의상을 조작, 변형하거나, 여러 가지 설치 방법을 통해 신체와 의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의미를 창출하고 있다.〈그림 6〉

피부의 확장으로서의 의상의 기능을 뒤로하고 정체성(Identity)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인체로부터 추상화(Abstracted)되어 신체가 완전히 빠져나간 시적인 형태로 나타난 의상은 물리적 심리적 보호를 제공 할 뿐만 아니라, 정체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의 체계이다. 의상이 미술처럼 의미를 전달하는 하나의 언어일 수 있는가하는 문제는 의상과 신체와의 관계에서 알 수 있다. 사회적 존재의 기반으로 신체 역시 하나의 기호이며 언어이고, 의상은 바로 그 사회적인 신체를 이루는 한 구성 요소이므로 의미전달의 언어로 받아들여진다. 타자의 존재와 그의 해석 행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옷 입기라는 행위는 타자 지향적이고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 행위이다.²⁷⁾

또한 과학 기술의 발달은 신체 환경에 급속한 변화를 불러와 인간과 기계가 합성된 새로운 인간형을 등장 시켰다.〈그림 7〉 컴퓨터 환경의 변화는 현실과 가상의 세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였고 이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Wearable Computer의 개념을 가진 의상이 등장했다.〈그림 9〉 가상세계에만 등장하던 신체와 의상은 이제 현실세계에서 모방하는 모델이 되었으며 컴퓨터와 이동수단의 발달로 급속하게 변화하며 좁아진 세계는 인간의 이동성을 요구하며 신유목민의 생활을 요구한다.〈그림 8〉

27) 김주환, “몸과 옷의 새로운 패러다임”, 월간미술, 1988. 4월, pp. 51-54

IV. 결론

20세기 후반의 시대적 패러다임인 포스트 모던적 사고 하에서 신체와 의상의 재현 관계로 부터 탈재현의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신체와 의상의 관계를 일대일 대응관계로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의상을 입고 있는 신체의 사회, 문화적 정체성과 시대적 이상이나 이념의 반영과 표출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미지의 재현과 탈재현, 더 나아가 의상의 신체에 대한 재현과 탈재현적 현상을 고찰함으로써 신체와 의상의 재현적 관계의 해체를 연구하기 위한 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예술에서의 이미지의 재현과 탈재현의 전개와 탈재현적 상황을 동시대 사유의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신체의 재현과 탈재현 현상이 나타난 의상의 여러 양상을 검토하였다. 탈재현 이후의 의상이 보여주는 신체의 변형이나 상호관계성의 해체, 고전적 성 개념의 해체 및 의상 본연의 기능인 입기가 해체된 여러 의상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 첫째, 새로운 인간상에 대한 해석으로서 파편화되고 조각나 해체된 신체와 그와 더불어 이상화 된 신체의 재현적 이미지로서의 의상이 불가능하게 된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로서 고전적 신체관과 전통적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이 확대 변형되었음을 파악하였다. 둘째, 탈재현 현상으로서 의상은 입기나 신체보호의 고정된 기능에서 벗어나 사회 문화적 차원의 다양한 의미의 중첩이 가능한 기호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의상을 복수 지시물로서 해석 할 수 있다. 셋째, 신체의 부재는 다양한 신체의 기표들과 의상의 형태들이 신체를 대신함으로써 부재의 이미지들과 실체들이 실재를 대신하는 하이퍼리얼리즘적 위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의상에서의 탈재현적 현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광현. 『거시코드로서의 이데올로기 문제』.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9.
- 김민자.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연구”. 복식 제37권, 1998.
- 김성곤(편). 『탈구조주의의 이해』. 서울: 민음사, 1998.
- 김옥동 외 7명. 『포스트모더니즘과 예술』. 김옥동 엮음. 서울: 청하, 1980.
- 신일순. “메를로 - 폰티의 몸의 현상학”.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심우성(편). 『신체의 미학』. 서울: 현대 미학사, 1997.
- 최광진. “현대 시각예술에서 재현의 의미기능”. 서울: 조형사, 2002.
- 최광진. “뉴이미지론의 위상과 두 패러다임-J. Baudrillard와 j. Lacan을 중심으로-” 서울: 조형사, 2000.

- 최종덕. 『부분의 합은 전체인가-현대 자연철학의 이해-』. 서울: 소나무, 1995.
- 한국기호학회. 『삶과 기호』.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7.
- Anne, Hollander. Seeing through Clothes. New York: The Viking Press, 1978.
- Anthony, Synnott. 『The Body Social: Symbolism, Self and Society』.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93.
- Barthes, Roland. The Fashion System. New York: Hill and Wang, 1983.
- Baudrillard, Jean. 『시뮬라시옹-포스트모던 사회문화론-』. 하태환(역). 서울: 민음사, 1997.
- Baudrillard, Jean. Simulations. New York: Semiotext(e), 1938.
- Brooks, Peter. 『육체와 예술』. 이봉지, 한애경(역). (2000).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0.
- Brooks, Peter. Body Work.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 Broude, Norma & Garrard, Mary. 『미술과 페미니즘-굴절된 여성의 이미지-』. 가승희(역). 서울: 동문선, 1994.
- Chadwick, Whitney. Women, Art, and Society. London: Thames and Hudson, 199.
- Chenoune, Farid. Jean Paul Gaultier. London: Thomas and Hudson, 1996.
- Christopher, Breward. The Culture of Fashion: A new history of fashionable dress. Manchester and New Yor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5.
- Colchester, Chole. The New Textile-trends and tradition. New York: Rizzoli, 1991.
- Deleuze, Gilles. 『감각의 논리』. 하태환(역). 서울: 민음사, 1995.
- DeLong Marilyn R. 『복식조형을 보는 시각』. 금기숙(역). 서울: 이즘, 1997.
- Gilles, Lipovetsky. The Empire of Fashion: Dressing Modern Democracy. Translated by Catherine Poter with a Foreword by Richard Sennett. New Jersey: New Fench Thought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 Jennifer, Craik. The face of fashion: Cultural studies in fash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94.
- Mizoeff, Nicolas. 『바디스케이프: 미술, 모더니티 그리고 이상적인 인물상』. 이윤희 & 이필(역). 서울: 시각과 언어, 1999.
- Nina, Felshin. The Empty Dress -Clothing as Surrogate in Recent Art. New York: Independent curators Incorporated, 1993

(접수: 2005년 10월 1일)

A study about body representation and irrepresentation on clothing

Prof. Dept. of Fashion Design, Duksung Women's Univ., Hyunshin Park

This study takes its premise from the observation that the body and clothing have been on the borders of the represent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reality and image for a long time since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 when the body and clothing started to reflect the phenomenon of misrepresentation. This research searched for and analyzed various types of misrepresentation of the body and clothing as reflected in fashion. For such an analysis it was essential to rationally examine clothing based on reality and the image. Drawing from a previously established meta-discourse including Lyotard's postmodern stance denying wholeness, Deleuze's position that proposed the logic of the body without organs or senses, Derrida's deconstructionism that dissolved the trans-mundane philosophy, and Baudrillard's image and realism that proposed the world of hyper reality composed of substances without origin, the author found that these concepts were all useful rational foundations for this study. Because the present symptoms of clothing fashion indicate it deviated from its original purpose as pure body protection, or clothing that represents parts of the body are not isolated single events but the result of contemporaneous speculation and cultural consistency, the above mentioned information and theories were needed. The present characteristics of image, which has revolted from the conflict between significant and signified, gives autonomy to the significant, and can be applied to clothing and the body. Clothing secured its autonomy from the body and proved the validity of its own existence, and this observation is a main thrust of this research.

In conclusion, misrepresentative clothing, featuring the absence of body functions as a new interpretation of the human model, adapts itself to the ever-changing periodical paradigm of the times. Also misrepresentative clothing emerged from the one-on-one relationship between clothing and the body or the relationship between clothing and function, and implicitly delivers a message as plural significant. Also these clothing can be regarded as a continuous image since the previous concept of clothing as reality has been reversed and overturned. Even though today's clothing is contrived from surreal simulacra and generated from models without origin or reality, and it does not have any significant or substitute, it lends credence to the idea that the 'Hyperreal' can be more realistic than the real.

Key words : body, reality, image, representation, irrepresentation, Hyperreal